

Management
Trade
Korean



유학생을 위한 경영·무역 한국어

이관식 · 정행 · 홍성훈 · 최세이 · 추민교



도서
출판 **박미정**

유학생을 위한
경영 · 무역
한국어

집필진

이관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현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정 행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학 박사
현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홍성훈 영국 워릭대학교 산업경영대학 (SIBS, University of Warwick)박사
현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세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수료
현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한국어교육원 초빙교수

추민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 석사
현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한국어교육원 강사

유학생을 위한 경영 · 무역 한국어

초판 1쇄 발행 2012년 10월 31일

초판 2쇄 발행 2019년 9월 5일

지 은 이 이관식, 정행, 홍성훈, 최세이, 추민교
펴 낸 이 박찬익
책 임 편 집 최민영, 이가영

펴 낸 곳 도서출판 박이정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6가길 4
전 화 02)922-1192~3
전 송 02)928-4683
홈 페 이 지 www.pjbook.com
이 메 일 pijbook@naver.com
등 록 1991년 3월 12일 제1-1182호

ISBN 978-89-6292-337-7(187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책을 펴내면서

국제화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사용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생활 주변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교정에서 들리는 각 나라 젊은 유학생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외국어와 서툰 한국어 억양들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어학 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이미 9만 명에 이르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에서 제시했던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 유치'라는 목표치에 근접했음을 물론, 또 '제9차 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해 2020년까지 우수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천명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국내 유입 유학생의 양적 증대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은 대학의 유학생 관리의 질 제고와 함께 이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높이는 일인데,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제각기 전공하는 개별 전공과목을 온전하게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줌은 물론 전공과목 이수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필자들은 유학생들의 전공과목 선행학습을 위한 전공별 기초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해당 교과목 운영을 통한 전공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과목 전공 교수 및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 가 공동 참여하여 한국어 연수와 전공 학습의 완충지대인 중간 단계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본 교재는 학부 및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선호하여 가장 많이 지망하는 전공과목의 이수 능력 수월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계열별 기초 전공과목의 교재로 사용하여 전공과목의 선행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목 교재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경영·무역 한국어'는 특히 대학에서 경영·무역 관련 학문을 전공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재로서 전공과목의 선행학습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 중 경영학 및 무역학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유학생들의 전공과목 수강에의 어려움을 줄이고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경영·무역 전공과목 수업 적응을 위한 중간 단계 교육 과정에 적합한 맞춤형 기초 전공 교재를 찾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곁에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루려는 아름다운 꿈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라며, 이 책의 집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행, 홍성훈 두 분 교수님의 크신 도움과 책 출판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애써 주신 최세이, 추민교 두 분 선생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10월

저자들을 대표해서 이 관식 識